

“무당파 표가 승부 가를 것... 젊은층도 적극 공략”

현직 프리미엄 존 캠벨·공화당 우세지구지만 가가호호 방문·TV캠페인 주력 “꼭 승리할 것”

“육·해·공군을 모두 투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20일 동안 총력을 다해 후회 없는 캠페인을 벌이겠다.”

11월 6일 선거에서 연방하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유일한 한인 강석희(민주·사진) 어바인 시장은 막바지 캠페인에 한창이다.

강 시장은 16일 “최근 이틀 동안 북가주와 미네소타 등 전국 각지에서 기금이 답지해 2만 달러를 모았다”면서 “지금까지 총 6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았다”고 공개했다.

그의 상대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존 캠벨(공화) 의원이다.

천만장자로 알려진 그는 막판 캠페인에서 유사시 막대한 실탄을 동원할 능력을 갖춘 난적이다.

강 시장 스스로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임은 인정한다. 그는 “솔직히 버거운 경쟁이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러 청신호가 나오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남은 기간 가가호호 방문과 TV 캠페인에 주력해 부동산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선거전략의 핵심은 무당파와 아시아계, 온건과 공화당원, 정치적으로향인 어바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묶어내는 것이다. 특히,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무당파 유권자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가 출마하는 45지구는 어바인, 터스틴, 빌라파크, 오렌지, 애너하임 힐스,레이크포리스트, 미션비에호, 라구나우즈, 라구나힐스, 랜초산타 마가리타 등 10개 도시와 비자치지역 코토데카자를 포함한다. 이 지구는 유권자 중 공화당원이 45.6%로 민주당원(28.3%)보다 많다. 무당파 비율은 26.1%다. 바꿔 말해 무당파의 지지가 승리의 필수 요건이다.

강 시장은 약 28만명의 유권자가 투



표를 할 것이며, 14만표가 당락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선거에 참여하는 백인 무당파의 6할, 아시아 무당파의 9할, 라티노 무당파의 5할 이상을 내 표로 만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투표참여 아시아계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원의 92%(8577명), 공화당원의 80%(1만34명), 무당파의 90%에게서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 10일부터 가가호호 방문, TV 캠페인, 소셜 네트워크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결국은 무당파의 표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인증 및 당적별 득표 목표

인증 및 당적	목표 득표율	목표 표수
백인 민주당원	92.0%	5만5926표
백인 공화당원	15.0%	1만6962표
백인 무당파	60%	2만8233표
아시아 민주당원	92.0%	8577표
아시아 공화당원	80.0%	1만34표
아시아 무당파	90.0%	1만1110표
라티노 민주당원	75.0%	8306표
라티노 공화당원	30.0%	2385표
라티노 무당파	50.0%	2827표
총 표수	해당 없음	14만4360표

강 시장 캠프의 조나단 바버 필드 디렉터는 앞으로 무당파, 그 가운데서도 UC어바인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집중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생들의 유권자 등록률을 높일수록 강 후보의 당선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후원 문의: (949) 415-8683

원용석 기자